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를 위한

해외연수결과보고서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를 위한

해외연수결과보고서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

04

권두칼럼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08

Part 1 사업개요

1, 2차 연수일정표 및 사업 개요

26

Part 2 도시브랜드가 곧 국가브랜드가 되다!

도시국가브랜드 사례연구 _ 싱가포르 & 바탐

목 차

Contents

50

Part 3 사소한 것들이 의미가 되는 순간들

근현대 건축물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과 문화정책 _ 오타루
나무와 자연환경이 의미를 갖게 되기까지 그리고 마을만들기_ 비에이 마을

74

Part 4 이제 다시 지역으로

연수 합평회

85

함께 한 사람들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이번 연수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바탐시, 일본 북해도의 하코다테, 오타루, 삿포로, 비에 이마을을 탐방하는 기획이다.

“도시브랜드가 곧 국가브랜드가 되는 사례”를 통해 지역 브랜드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기획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는 싱가포르의 억압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그들은 싱가포르라는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어떻게 신화를 재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배로 20분도 채 안되는 거리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현지의 문화와 어떤 차별성을 띠고 있는가 적나라한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는 ‘늘이는 자’ 또는 ‘두드러서 펴는 자’를 뜻하며 폴리페몬(Polypemon) 또는 다마스테스(Damastes)라고도 한다.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버렸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신이 저지르던 악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및 ‘프로크루스테스 체계(Procrustean method)’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여행과 관광은 다르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travel'의 어원은 '고통', '고난'을 뜻하는 'travail'이다. 여행이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쾌락이나 오락으로 여겨지게 된 건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에 이르러서다.

인간은 과거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nomad)의 시대를 거쳐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아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여행은 일상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장자(B.C 369~289)는 '성심(成心)', 즉 '구성된 마음'이라는 편견을 문제 삼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장자가 '성심'을 문제 삼는 이유는 특정한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 즉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초자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공동체 규칙을 배우면서 자라났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국의 공동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마음으로 성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고, 한국어를 쓰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산다. 이것이 바로 성심의 작용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어느 날 미국 중산층 가정의 정원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툭툭 치는 미국 어린이를 보았다고 하자.

이것은 미국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버릇없고 예의 없는 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심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사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공동체에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면화된 '성심'은 그 공동체에서 살 때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1) 장자&노자 《도에 따지걸기》(김영사 강신주 지음 p25) 참조

권두칼럼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가거나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성심을 특정한 공동체의 흔적이라고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심을 초차아(Superego)로 삼아 타자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다.¹⁾

즉,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구성된 마음, 즉 성심(成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은 인간의 독선적 아집을 깬다”는 말은 여행의 장점을 말해주는 오랜 속설이다.

“내가 로마 땅을 밟은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자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은 여행의 위대함을 웅변해 주는 증언이다.

혹자는 여행이라는 것의 ‘파노라마식 관계’²⁾라는 한계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행이 가지는 ‘직접 경험’의 권위가 가지는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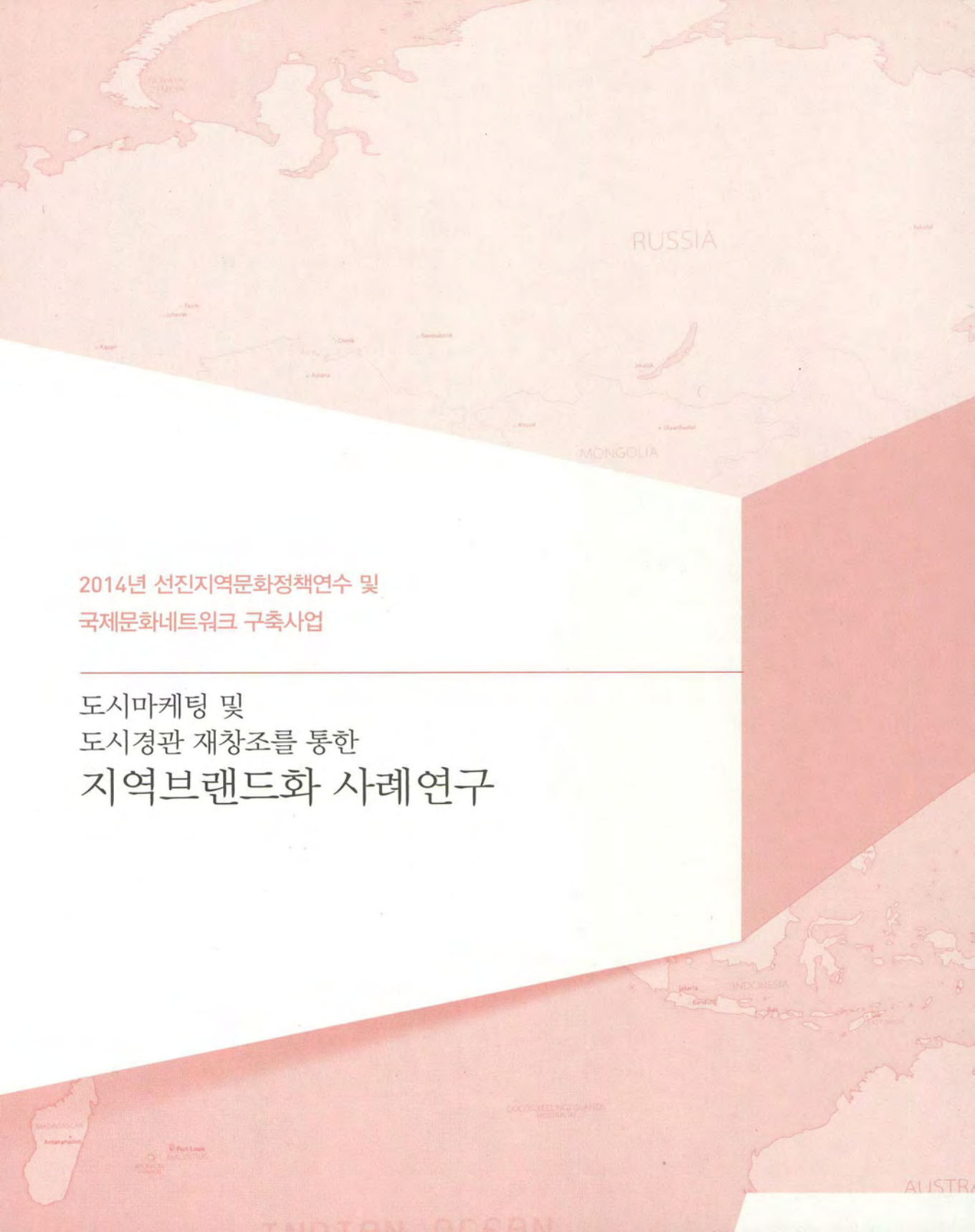
다른 역사, 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그 불편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시각은 더 비약적으로 확장된다.

때문에 여행의 어원이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Travail 인 것이 아닐까?

2) 여기서 말하는 파노라마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퍼레이드이다. 거기에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간의 얼굴과 액션이 지워져 있다. 그때의 풍경은 자연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생명의 거친 호흡과 약동이 생략된 ‘침묵의 소묘’일 따름이다. 이런 구도에선 오직 주체의 나른한 시선만이 특권 지위를 확보한다. 시선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대상은 전적으로 거기에 종속될 뿐, 도시인들이 보는 전원, 동양인의 눈에 비친 서구, 서구가 발견한 동양, 사실 이런 건 모두 외부자가 낯선 땅을 ‘훑듯’ 바라보고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허상이다. 그 허상이 막강한 힘을 확보해 한 시대와 사회를 ‘주름잡는’ 표상이 되면, 모두 그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그것을 대상에 위압적으로 덧씌우는 식의 악순환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여행이란 이런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년 14쪽)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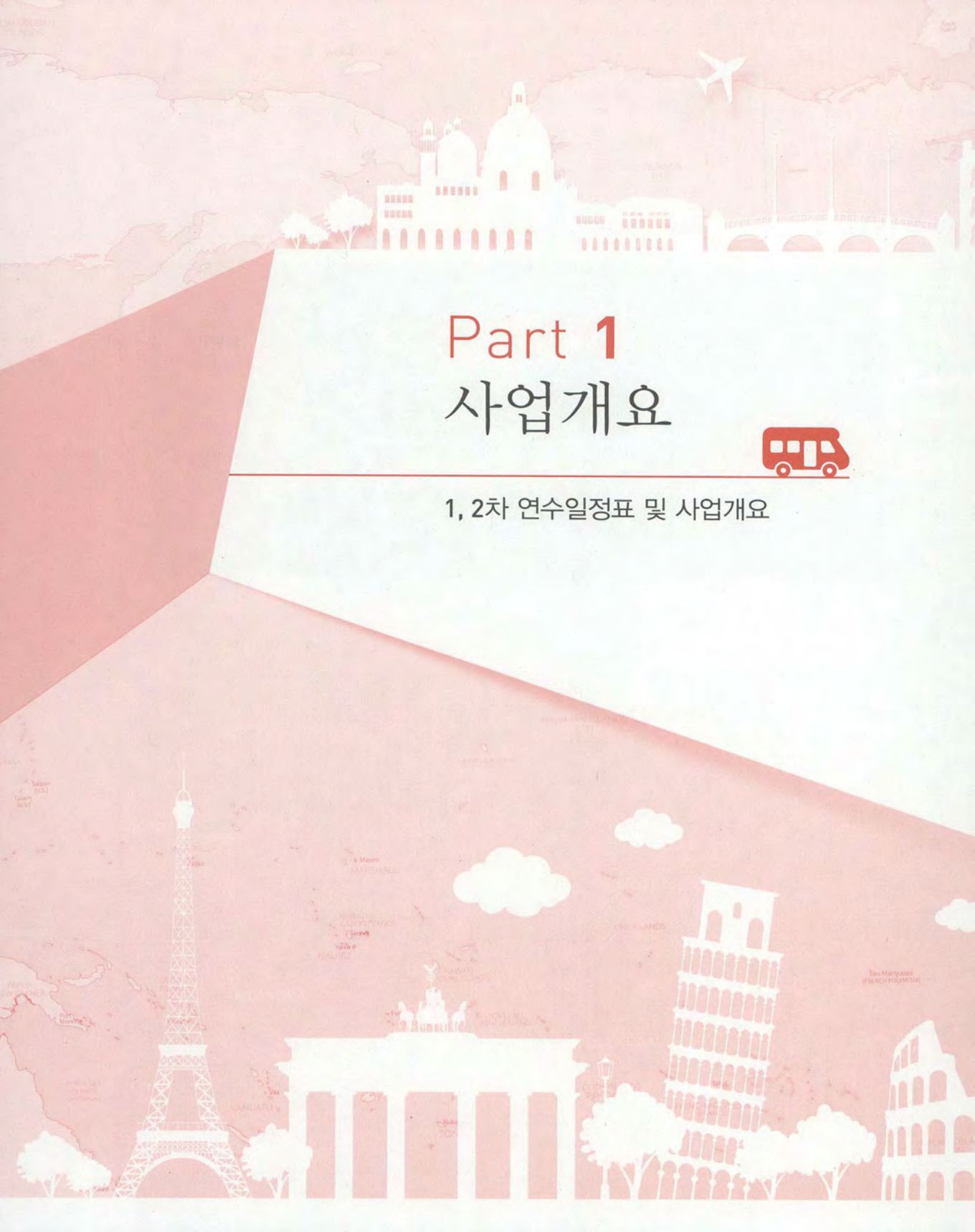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

Part 1

사업개요



1, 2차 연수일정표 및 사업개요



1차 연수

1차 연수일정표



● 사업목적

- 선진지역 사례 연수를 통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대안 마련
- 도시 국가와 국가브랜드 마케팅 사례와 도시 경관의 재창조를 위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역문화유산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 활동 영역 확대 추진

● 개요

- 기간 : 2014. 7. 17 ~ 2014. 7. 21 (3박 5일)
- 참가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장
- 장소 : 싱가포르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추진방침

- 문화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 단일 사회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다민족국가의 문화다양성 사례 및 도시 국가와 국가브랜드 마케팅 사례 연구
-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개별 연수
 - 원장단/국장단 평가회의를 통해 각 사례 공유
- 자부담 원칙 : 연수비용의 50% 지원/이하는 자부담

● 세부일정

제1일 7월 17일 (목)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11:30	인천 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 3층 "A" 카운터 "창가쪽" 테이블 집결
14:20~19:55	KE 643 석식(기내식)	인천 국제공항 ▷ 싱가포르 창이 공항 비행소요시간 (약 6시간 35분 소요) 호텔로 이동 (약 40분 소요)
09:00	호텔 체크인 및 석식	OASIA 호텔 T : +65 6881-8888



제2일 7월 18일 (금)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7:30~09:00	조식(호텔식)	
		쥬롱새 공원(새소, 트램) (약 2시간 30분소요 예정)
12:00	중식	쥬롱새공원 뷔페
		보타닉가든 (난공원) (약 40분 소요 예정) 오차드로드 시내 (약 1시간 소요 예정)
16:00	웨어 이동	싱가폴 > 인도네시아 바탐 (약 1시간 소요)
18:00		바탐 도착, 가이드미팅
	석식	현지식
20:00	호텔 체크인	HOLIDAY INN RESORT T:+62 778-381333

제3일 7월 19일 (토)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7:30	조식(호텔식)	
09:00~13:00		나고야타운, 중국사원, 원주민 마을
13:00~14:00	중식	한식
14:00~17:00		리조트 복귀 및 휴식(실내수영장 등)
18:00~21:00	석식	중국식 씨푸드 야시장 투어
	호텔 체크인	HOLIDAY INN RESORT T:+62 778-381333





제4일 7월 20일 (일)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7:30	조식(호텔식)	
	휠리 이동	바탐 ▷ 싱가포르 (약 1시간 소요)
		머라이언파크, 차이나타운, 싱가포르에스플로네이드, 샌즈전망대(스카이파크)
12:00	중식	로얄호텔 스팀보트
	이동 케이블카	센토사섬
		이미지오브싱가폴, 머라이언타워 관광
18:00~20:00	석식 후 공항 이동	한식
22:35	KE644	싱가폴 창이공항 ▷ 인천공항 (약 6시간 15분 소요)

제5일 7월 21일 (월)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5:45		인천공항 도착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시, 군문화원의 지역문화 거점역할 강화 방안 강구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기획 및 운영 활성화 촉매



2차 연수

2차 연수일정표

● 사업목적

- 선진지역 사례 연수를 통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대안 마련
- 도시 국가와 국가브랜드 마케팅 사례와 도시 경관의 재창조를 위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역문화유산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 활동 영역 확대 추진

● 개요

- 기간 : 2014. 6. 17 ~ 2014. 6. 20 (3박 4일)
- 참가대상 :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 사무국장
- 장소 : 일본 홋카이도 일대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요내용

- 자연문화원형의 보호와 활용을 통한 마을브랜드마케팅 사례 연구
_ 비에이 마을만들기 관계자와의 간담회
- 근대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브랜드마케팅 사례 탐방
_ 하코다테, 오타루 근대 건축물 활용 사례
- 마을만들기 투어



● 추진방침

- 문화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탐방 및 공공기관 교류가능성 타진
-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개별 연수
_ 원장단/국장단 평가회의를 통해 각 사례 공유
- 자부담 원칙 : 연수비용의 50% 지원/이하는 자부담

● 기대효과

- 시, 군문화원의 지역문화 거점역할 강화 방안 강구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기획 및 운영 활성화 촉매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사무국장 연수 세부 일정

● 개요

- 기간 : 2014. 6. 17(화) ~ 6. 20(금), (3박4일)
- 방문국가 : 일본 홋카이도 일대
- 집결 : 6. 17(화)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3층 "A" 카운터 "창가쪽" 테이블 집결
- 항공스케줄 / 대한항공

출국	6월 17일(화)	KE765	인천 출발 10:10 일본 치토세 도착 12:55 소요시간 약 2시간 45분
귀국	6월 20(금)	KE766	일본 치토세 출발 14:15 인천 도착 17:10 소요시간 약 2시간 55분

- 삿포로 날씨 : 예상 기온 8℃ / 22℃
 여름 날씨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 조석으로 추워질 수 있으므로 가디건 또는 바람막이 점퍼 준비
- 준비물
 - 여권, 엔(/환전), 세면도구, 카메라, 가방, 화장품, 모자, 자외선차단크림, 선글라스, 편한 신발, 평소 복용약, 비상구급약, 우산, 기타 개인 필요물품 등
 - 공식일정을 위한 단정한 복장 준비 (자켓, 칼라 티셔츠, 긴 바지 등)
 - 100볼트 변압기 (일본의 전압은 100볼트이므로, 소지할 핸드폰, 카메라 충전기 등이 전압 조절이 가능한 타입인지 확인하고 변압기 준비)



○ 무료수하물 : 일반석 1인당 23kg이하이며, 62in이내의 짐 1개

● **간담회 안내**

○ 비에이 마을

- 일시 : 2014년 6월 19일(목)
- 장소 : 비에이 청사 회의실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3:30~13:45 (15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 설명 연수 참가자 소개
13:45~14:45 (60분)	비에이 마을만들기 설명 및 간담회
14:45~15:45 (60분)	비에이 마을 견학 및 설명

□ **세부일정**

제1일 6월 17일 (화)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8:00	인천 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 3층 "A" 카운터 "창가쪽" 테이블 집결
10:10~12:55	KE 765 중식(기내식)	인천 국제공항 ▷ 하코다테 공항 비행소요시간 (약 2시간 45분 소요)
12:55		하코다테 시내로 이동 (약 4시간 소요)

17:00	하코다테	세계 3대 야경 하코다테 야경 감상 _ 로프웨이 탑승 : 왕복
	호텔 체크인 석식(호텔식)	이마진 호텔 T:0138-57-9161
22:35	KE644	싱가폴 차이공항 ▷ 인천공항 (약 6시간 15분 소요)

제2일 6월 18일 (수)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7:30	조식 (호텔식)	
09:00	하코다테	하코다테 근대 건축물 활용 사례
	중식 (현지식)	
	이동	하코다테 ▷ 오타루 (약 4시간 30분소요)
	오타루	오타루 근대 건축물 활용 사례
	이동	오타루 ▷ 삿포르 (약 2시간 30분소요)
	석식 (현지식)	
	호텔 체크인	삿포르 라이프포 T:011-521-5211



제3일 6월 19일 (목)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7:30	조식(호텔식)	
09:00	이동	삿포로 ▷ 비에이 이동 (약 3시간 소요)
12:00	중식(현지식)	
13:00~16:00	비에이	*공식일정: 비에이 마을만들기 사례탐방 (6쪽 참고) _비에이마을 관계자 간담회
	이동	비에이 ▷ 삿포로 (약 3시간 소요)
	석식(현지식)	
	호텔 체크인	삿포로 라이포트 T:011-521-5211

제4일 6월 20일 (금)

시간	지역/교통편/식사	세부내용
07:30	조식(호텔식)	
07:00~11:00	삿포로	삿포로 건축물 활용 사례
11:00	이동	삿포로 ▷ 치토세 공항 (약 1시간 소요)
14:15	KE766 중식(기내식)	치토세 ▷ 인천공항 (약 3시간 소요)
17:15		도착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경과

✎ 왜 가야 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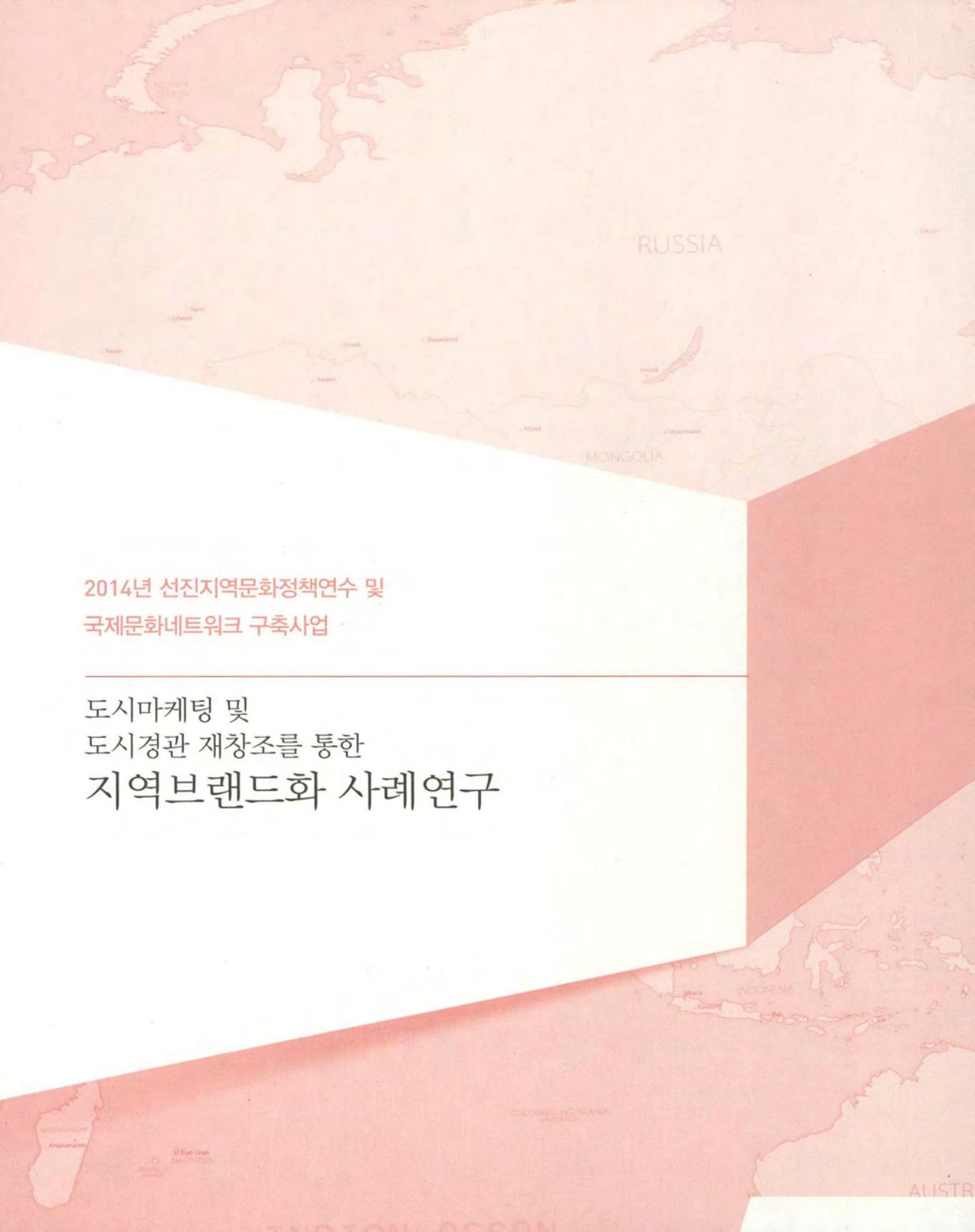
- 대도시의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 활동 영역 확대

✎ 무엇을 하려 하는가

- 대도시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 콘텐츠에 관한 싱가포르 / 북해도 지역 사례 탐방 및 비교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국내외 정책 비교
- 문화원형의 관광 상품화, 공연컨텐츠화 사례 탐방을 통해 지역 문화원형 활용 방안 모색

✎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전 오리엔테이션,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개별 연수
_ 원장단/국장단 평가회의를 통해 각 사례 공유
- 자부담 원칙 : 연수비용의 50% 지원/이하는 자부담
- 문화원형 보존 및 관광상품 활용 방안에 대한 해외 탐방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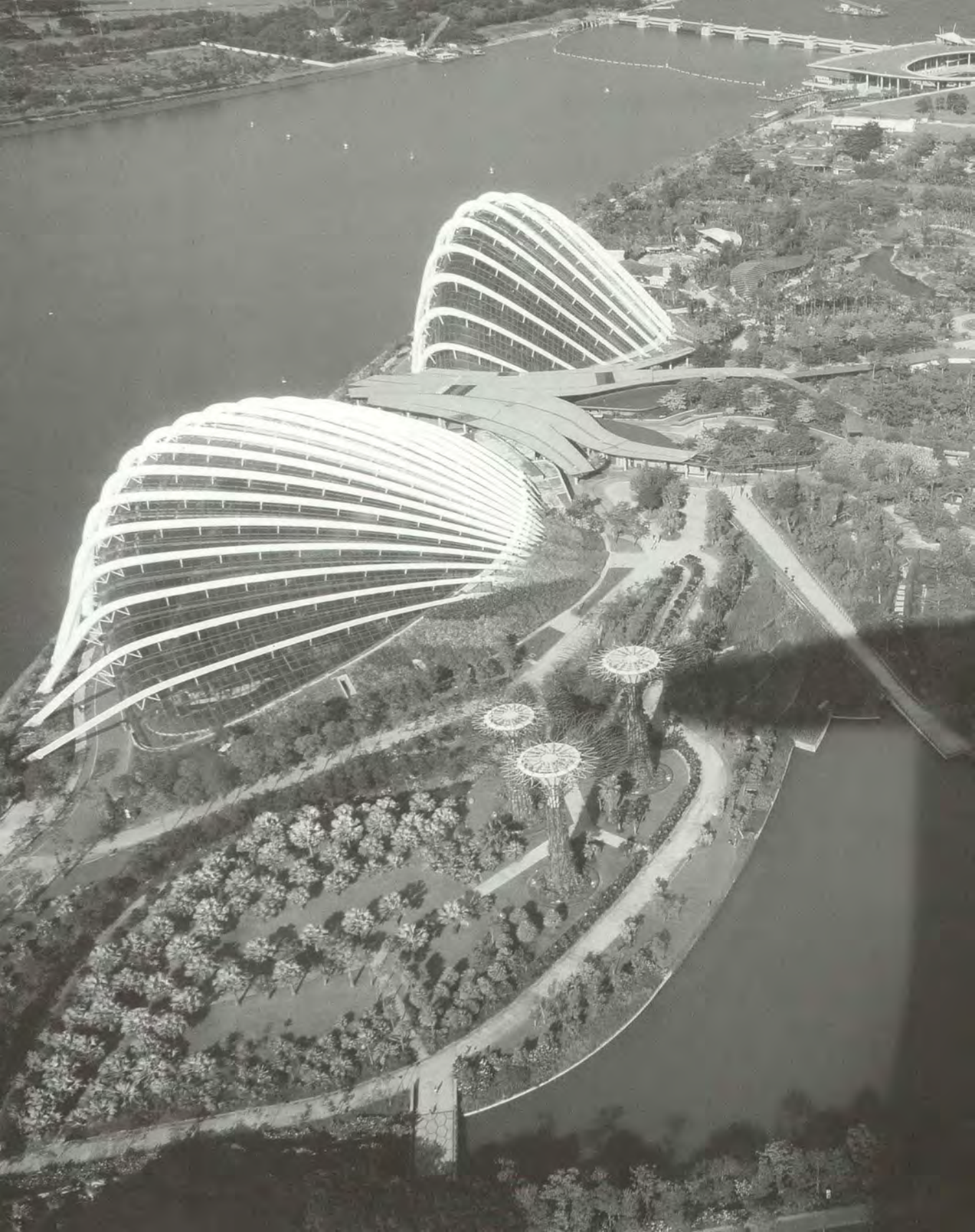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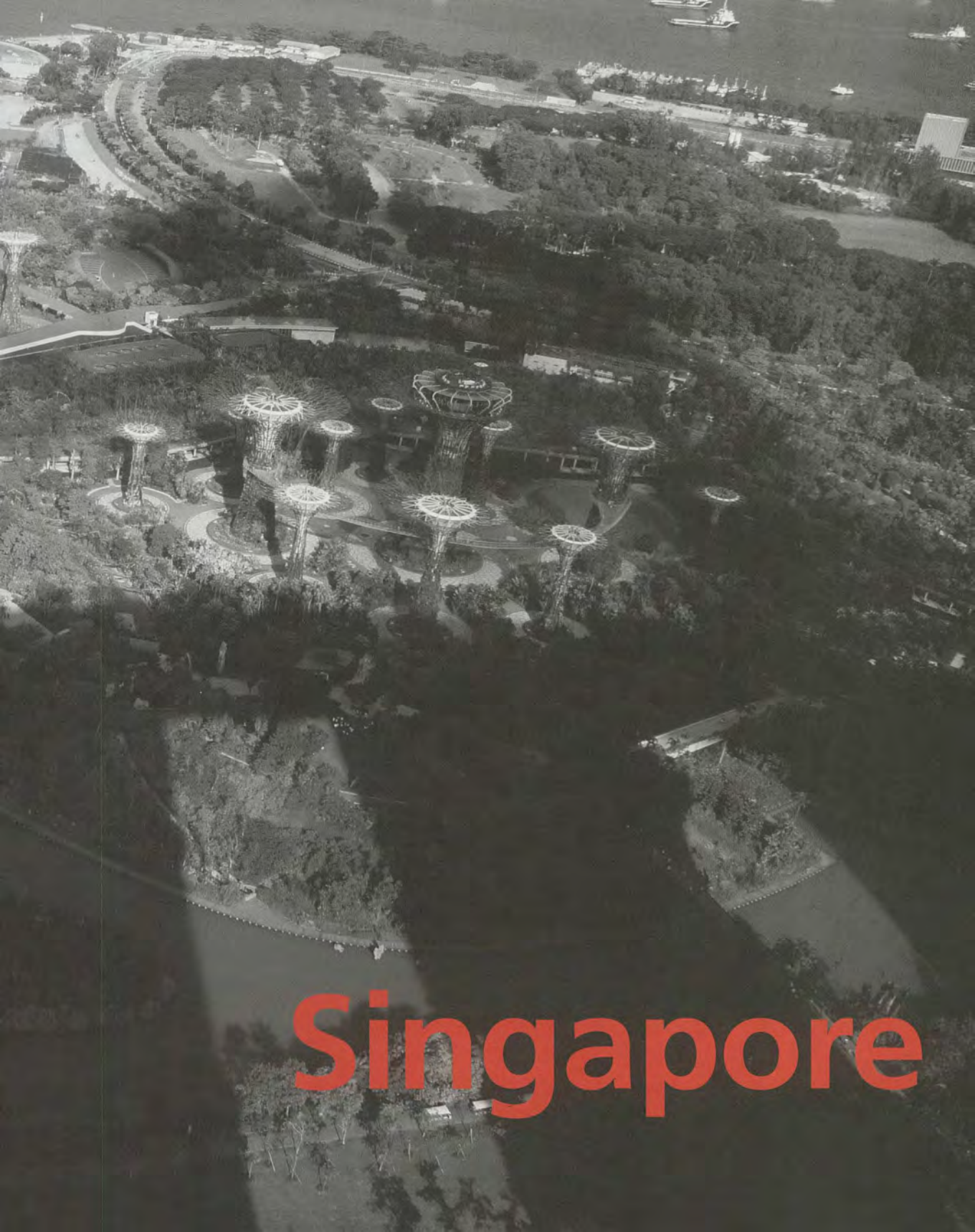
도시브랜드가 곧 국가브랜드가 되다!



도시국가브랜드 사례연구
_ 싱가포르 & 바탐







Singapore



1) 싱가포르 개황

- 국명 : 싱가포르공화국 (The Republic of Singapore)
- 위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
- 면적 : 710km²
- 민족 : 중국계 (74.7%), 말레이계 (13.6%), 인도계 (8.9%), 기타 (2.8%)
- 언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기후 :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
- 인구 : 499만 명 (2009년 기준)
- 수도 : 싱가포르 (Singapore)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종교 : 불교·도교 (51%), 이슬람교 (14.9%), 기독교 (14.6%), 힌두교 (4.0%)
- 교육 : 의무교육 6년 (초등학교)
- GDP : 1,771억 미국달러 (2009년 기준)
- 화폐단위 : 싱가포르 달러 (Singapore dollar, S\$)
- 독립일 : 1965년 8월 9일



정식 국가 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The Republic of Singapore)이다.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로, 이후 영국의 해협식민지(The Straits Settlements)가 되었고 1959년 새 헌법에 따라 영국 연방의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되었다가 1965년 주권국가로서 분리 독립하였다.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싱가포르 섬과 6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싱가포르(Singapore)이며 면적은 710km²로 서울시 면적 605.5km²와 비슷하다.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외국인 119만 명을 포함하여 총 499만 명이다. 민족 구성은

중국계 74.7%, 말레이계 13.6%, 인도계 8.9%, 기타 2.8%로 이루어져 있고, 200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른 종교 구성비는 불교·도교가 51%, 이슬람교 14.9%, 기독교 14.6%, 힌두교 4.0%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Tamil) 등의 언어를 사용한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연중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 11월~1월 사이는 몬순 시기로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2℃~3℃ 정도 낮아진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31.0℃, 최저기온은 24.1℃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346mm이며 평균 습도가 오후 2시 기준으로 84.2%이다.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내각제로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의회는 2010년 현재 직선의원 84석, 지명의원 9석, 무선거구 1석 등 총 9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일은 독립기념일인 8월 9일이며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이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약어)은 2009년 기준 1,771억 미국달러이며 1인당 GDP는 3만 5515미국달러로 2009년 GDP 성장률은 -2%, 물가 상승률은 0.6%를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3.0%를 기록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수출 2,689억 미국달러에 수입이 2,449억 미국달러로 총 교역액은 5,138억 미국달러이다. 화폐 단위는 싱가포르 달러(Singapore dollar, S\$)이며[중국어로는 신자포위안(新加坡元)], 2009년 기준 1미국달러는 1.4545싱가포르 달러이다. 2009년 외환 보유고는 1,878억 미국달러이고 2010년 예산은 318억 미국달러(463억 싱가포르 달러)이다.

2) 싱가포르의 역사

3세기경 중국 왕실의 기록에 의하면 싱가포르를 '반도 끝의 섬'이라는 의미의 파라주(婆罗洲, Pu Luo Chung)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레이어의 플라우 우종(Pulau Ujong: 섬 끝의 땅)에서 그 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스리위자야왕국의 트리부아나(Tri Buana, 또는 Sang Nila Utama) 왕자가 현재 싱가포르에 표류했을 때 사자를 목격하

고 싱가포르(Singapura: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라고 명명한 것이 싱가포르 국명의 유래이다. 1330년 ^경 중국인 여행가 왕다유안(Wang Dayuan, 网大圓)은 소수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해적들이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는 싱가포르 내 말레이인들의 정착촌인 단마씨(Dan Ma Xi, 单马锡)를 여행했다. 1365년 자바문헌 나가라끄레따가마(Nagarakretagama)에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떼마 (Teamasek: 항구도시)'이라고 기록하였고, 14세기 후반부터 싱가포르라는 표현이 통칭적으로 사용되었다. 1390년대에는 마자빠히트 왕조가 멸망하자 빠라메스와라(Parameswara) 왕자가 싱가포르에서 여생을 보냈다.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하자 말레이 제독이 싱가포르로 도망한 후 조호르 라마(Johor Lama)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으나 1587년 포르투갈에 의해 다시 멸망하였다. 1613년 포르투갈은 관현이 있는 싱가포르를 불태워 싱가포르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기록이 소실되었다.

19세기 초까지 싱가포르는 네덜란드의 영향 하에 있다가 1819년 1월 영국의 래플스(Sir Thomas Stamford Raffles)가 조호르 왕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의 개발을 착수하였다. 1823년 6월 7일, 래플스는 매달 2,000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조호르왕국의 술탄 거주지역과 테멩공(Temenggong)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전역을 영국동인도회사에 영구적으로 할양하는 조약을 성립시켰다. 1826년 싱가포르는 말라카와 삐낭에 흡수되어 동인도회사 지배 하의 해협식민지로 편입되었고, 1867년 싱가포르의 관할권이 영국 식민지청으로 이전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시대가 개막되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싱가포르는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였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1946년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이 싱가포르를 재점령하였을 때 싱가포르 국민들은 영국에 대한 신뢰감 보다는 국민적 자각에서 발아한 민족주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단계적으로 자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식민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53년 말라야공산당의 위협이 다소 누그러지자 식민 정부는 조지 렌들(Sir George Rendel)을 중심으로 한 자립정부 구성을 약속했다. 자립정부는 총 32석 중 25석을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입법의회와 총리, 각료들이 존재하는 행정부를 갖춘 의원내각제로

구성되었다. 영국 식민정부는 국내 안보나 외교업무,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유지하였다.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연방의 구성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채 2년도 못가서 싱가포르의 정치인들이 비말레이계의 단결과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여 1965년 8월 9일 독립하였다. 세계 언론들은 싱가포르의 독립보다 작은 섬나라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앞세웠다. 국민의 대부분이 무단정착촌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실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10~12%에 달하였다. 무엇보다도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중계무역항은 19세기 이래로 개발이 미진하여 더 이상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었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룽(Jurong)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게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텍스 홀리데이(tax holiday)를 실시하였다. 한편 식민당국이 약탈을 행하는 추출(抽出)무역에서 가공무역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를 필수 언어로 채택하여 공교육이나 공기업에서 상용화 되도록 하였다. 종족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영어와 함께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국가애'(national fraternity, 國家愛)를 학교에서 교육 하였다. 주택부족 문제 역시 주택개발공사(Housing Development Board)가 주도한 공공주택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국민의 90% 정도가 주택 문제를 해결했다.

3) 싱가포르의 문화

싱가포르는 서양의 세계주의적인 문화의 포장 아래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의 전통이 공존하는 다문화도시국가이다. 싱가포르 각 민족의 무용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공연한다. 특히 중국무용에서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실험적 형태의 무용이 나타난다. 유명한 무용단체는 댄스 앙상블 싱가포르, 스리와나, 마리트알라야 체조협회 등이 있다.

싱가포르 최초의 프로 발레단인 싱가포르 댄스 시어터는 클래식 발레와 동서양의 요소가 혼합된 현대무용 레퍼토리로 유명하다. 이 발레단은 1980년대 워싱턴 발레단에 명성을 가져다준 고(故) 고추산(Goh Choo San)의 안무작업을 공연한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활동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른 예술분야보다 많은 비율의 음악가들을 육성시켜왔다. 싱가포르 출신 클래식 음악가는 해외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그들의 감성과 뛰어난 음악해석, 테크닉의 완성도로 존경받고 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서우이트킨(Seow Yit Kin)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시오우 리 친(Siow Lee Chin)은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프로오페라단인 싱가포르 릴릭 시어터(Singapore Lyric Theatre)를 가지고 있으며 단원들은 주로 싱가포르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단원도 선발한다.

싱가포르의 교향악단 싱가포르교향악단(SSO)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악단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SSO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주자와 협연하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순회공연을 한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예술가로는 수재화가 옹킴셴(Ong Kim Seng), 조각가 응엔텡(Ng Eng Teng), 서예가 판쇼(Pan Show) 등이 있다.

1977년 이후 격년제로, 1999년 이후 해마다 국제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세계의 다양한 예술단체를 초청하고 있으며, 전국민이 각자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를 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이 선호하는 스포츠는 조깅, 수영, 축구 등이다.

각 종교별로 다양한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국가 전역의 행사는 매년 8월 9일 실시되는 독립일로서 각 집마다 국기와 싱가포르의 마스코트인 멀라이언이 그려진 깃발을 내건다.

싱가포르



1) 주롱 새공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상적인 조류 사육장인 주롱 새공원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600여 종, 8,000여 마리의 아름다운 새들이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서식하고 있다.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플라밍고, 마코, 무소 새와 앵무새들의 쇼는 재미있고 흥겨운 볼거리로 특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 공원의 '송버드 테라스(Songbird Terrance)'에서는 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색다른 경험도 가능하다.

또한 '펭귄 퍼레이드(Penguin Parade)' 구역은 남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5종류, 200여 종의 펭귄의 안식처이며, 50여 종의 바닷새들도 함께 서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색깔이 화려한 큰 부리 앵무새와 코뿔새,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정글에서 온 100여 종의 새들도 있다.

이 새들의 적도 사육장은 정오에 부는 열대성 천둥 폭풍우까지 사전 테스트를 거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 보타닉가든

싱가포르 식물원은 아열대 섬의 무수한 공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원이다. 오차드 로드 옆에 있는 이 공원은 52헥타르의 방대한 부지 위에 원시림과 프랜지페니, 장미, 관상용 식물 등이 특별공원과 잘 조화를 이루며 전시되어 있어 현지인에게도 인기가 높으며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전 세계 희귀종을 비롯하여 수천 종의 식물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식물원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국립 난초 정원난초 재배지역에는 20,000여 난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국립 난초 공원'은 지난 1995년 11월에 개장하였는데, 광활하게 펼쳐진 지상 재배구역, 수중전시, 그리고 중미와 남미에서 온 이국적인 컬렉션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 밖에 새로운 명소로는 '야자수 계곡'과 '에코 호수' 그리고 '심포니 호수'에서 열리는 야외콘서트 등을 꼽을 수 있다.

3) 오차드 로드



오차드 로드는 세계 최대 쇼핑센터 밀집 지역 중 하나다.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최신 아이템의 샵과 니안시티, 월록 플레이스, 파라곤, 위스마 아트리아, 더 히렌 등 쇼핑몰이 즐비하다. 오차드 로드는 19세기 전까지 땅콩 공장이었다. 1970년 도시계획 정책에 의해 쇼핑의 거리로 변모했고,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

오차드 퍼레이드 호텔부터 플라자 싱가포르까지 약 3km에 이르는 구간을 총칭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코프 로드와 만나는 사거리에서부터

센터 포인트 쇼핑센터까지 약 1.5km 구간이 대표적이다. 정기 세일 외에도 1년 내내 다양한 세일이 실시되어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길 수 있다.

4) 머라이언 파크

엘리자베스 산책로에서 앤더슨교를 건너면 바로 앞에 머라이언 상이 있는 머라이언 공원이 있다. 공원 안에는 본 동상과 더불어 새끼 머라이언과 다양한 색을 가진 머라이언들이 함께 있어 싱가포르에 왔었다는 증표를 남기기 위한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하다.

1972년 9월 15일 오후 8시 45분에 이광오 수상이 제막 버튼을 눌러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머라이언 동상은 상반신은 싱가포르 국명의 유래인 '싱가(산스크리트어로 사자를 뜻한다)'를 뜻하는 사자(Lion), 하반신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인어(Mermaid), 위 두 단어가 합쳐져 머라이언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만들고 동상까지 세웠다.

머라이언 동상에는 두 개의 얼굴, 즉 낮과 밤의 얼굴이 있다. 낮에는 싱가포르를 오가는 배와 푸르게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늠름한 숫 라이온의 모습을 보여 주지만, 밤이 되면 아늑한 조명을 받으며 요염하면서도 편안한 암 머라이언의 신비로운 자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야간에는 조명을 끌 경우가 있으니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5) 차이나 타운

차이나 타운에는 싱가포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역사와 애환이 배어 있다. MRT 차이나 타운역에서 스리 마리암만 사원까지 100m 가량 이어지는 '파고다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변화한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다. 낡고 오래된 문을 열고 상점 안에 들어서면

중국 전통 의상을 비롯해 도자기, 서예품, 싸구려 기념품까지形形色색의 다양한 물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먹자골목인 스미스 스트리트의 노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맥스웰 푸드 센터에서는 왓지떨할 분위기에서 피시볼 누들, 사워슌 주스 등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음식과 음료,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맛집을 찾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식당을 찾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6) 에스플러네이드

1985년 싱가포르 아트센터 종합계획에 따라 싱가포르 DP 아키텍 팀 등이 작업해 1996년 짓기 시작했다. 4천 억원을 들여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에 2천명 규모의 극장과 1,6천명

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 홀 등 공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7년여의 건축기간이 소요된 뒤 2002년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완공된 에스플러네이드에는 콘서트 홀과 극장, 강당, 야외 극장, 쇼핑몰 등이 있다. 싱가포르 전망대 중 최고로 꼽히는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 파크에서 에스플러네이드를 보면 두리안을 닮은 독특한 모습이 눈에 쏙 들어오며 한 눈에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하고 멋진 외관을 지녔다. 고층도치 같기도 한 사면체들이 빈틈없이 붙어있으며 7천 여장의 뾰족한 알루미늄 차양이 특징인데 건축가 영국 마이클 월퍼드와 싱가포르 DP 아키텍의 창의가 구현된 것이다.

7) 스카이파크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의 가장 꼭대기인 57층에 있는 스카이 파크는 싱가포르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레스토랑 및 바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수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낮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8) 센토사 섬 케이블카

센토사 섬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손꼽힌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블랙 크롬 디자인으로 새단장을 했으며 지상 100m 높이의 대형 파노라마 창문 사이로 싱가포르의 시원한 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9)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밀랍 인형과 생생한 사운드, 냄새까지 사실적으로 재현해 놓은 전시물을 통해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암흑기를 실감나게 전시한 항복의 방 (Surrender Chambers)을 비롯해 중국, 말레이, 인도, 페라나칸이 가장 번성했을 때 행해진 의식과 축제를 직접 체험하는 것도 흥미롭다.





10) 머라이언 타워

37m 높이의 머라이언 상으로 머라이언 공원에 있는 것보다 몇 배나 큰 크기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센토사 섬은 물론 맑은 날엔 인도네시아 섬까지 조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탐섬



1) 바탐섬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Kepulauan Riau)에 속해 있는 섬으로 면적은 415km²(서울의 2/3)이다. 행정 구역 상으로는 리아우 제도 주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빈탄 섬, 렘팡 섬, 갈랑 섬, 촘볼 섬, 쿤두르 섬, 카리문 섬과 함께 리아우 제도를 이루는 섬 가운데 하나이다. 리아우 해협(Riau Strait)을 사이에 두고 바탐(Batam)과 빈탄(Bintan)이 분리되어 있다.

소수의 오랑라우트(Orang Laut) 토착 부족민이 아직도 이 섬에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1973년 협정을 기본으로 2005년까지 바탐 섬 북부 지역에 관한 분쟁을 완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 사회

바탐은 주로 주위의 섬들에서 이주해온 인도네시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바탐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찾아든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이곳에 정착하고 있다.

몇 십년전만해도 고기잡이 마을에 불과하던 이곳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바탐은 이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들이 이곳에 새로운 공장들과 주택, 레저 시설, 그리고 골프코스과 호화로운 호텔들을 짓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 기후

낮 시간에 매우 더울 때의 기온은 32~33℃, 밤에 시원할 때의 기온은 23~26℃ 정도이다. 계절은 건기(3월~9월)와 우기(10월~2월)로 나뉘며, 건기에는 우기처럼 비가 자주 오지는 않으나 열대지방의 스콜현상이 있어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한다. 우기에는 2~3일 정도 한국의 장마비처럼 비가 계속되는 날도 있으나 오래 계속되는 편은 아니다. 건기는 무덥고, 우기는 비교적 시원하나,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시원하다는 정도는 아니고 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이 많다는 의미이다. 원주민들은 우기에는 추위를 느낀다. 섬 지역이라서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된다.

2) 나고야 타운

나고야는 바탐의 심장부로서 레스토랑, 호텔, 극장, 쇼핑 플라자, 야시장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나고야는 바탐의 거의 모든 은행들과 환전소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바탐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고야에서 바탐의 모든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3) 원주민 마을

인도네시아 바탐 원주민 마을은 야자 나무로 가득한 현지 전통 마을로 순박한 현지인과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전통 무용 감상과 수상 가옥, 전통 결혼식장 등등 도시적 이미지의 싱가포르와는 다른 인도네시아 원주민 마을의 새다른 경험을 줄 것이다.

4) 중국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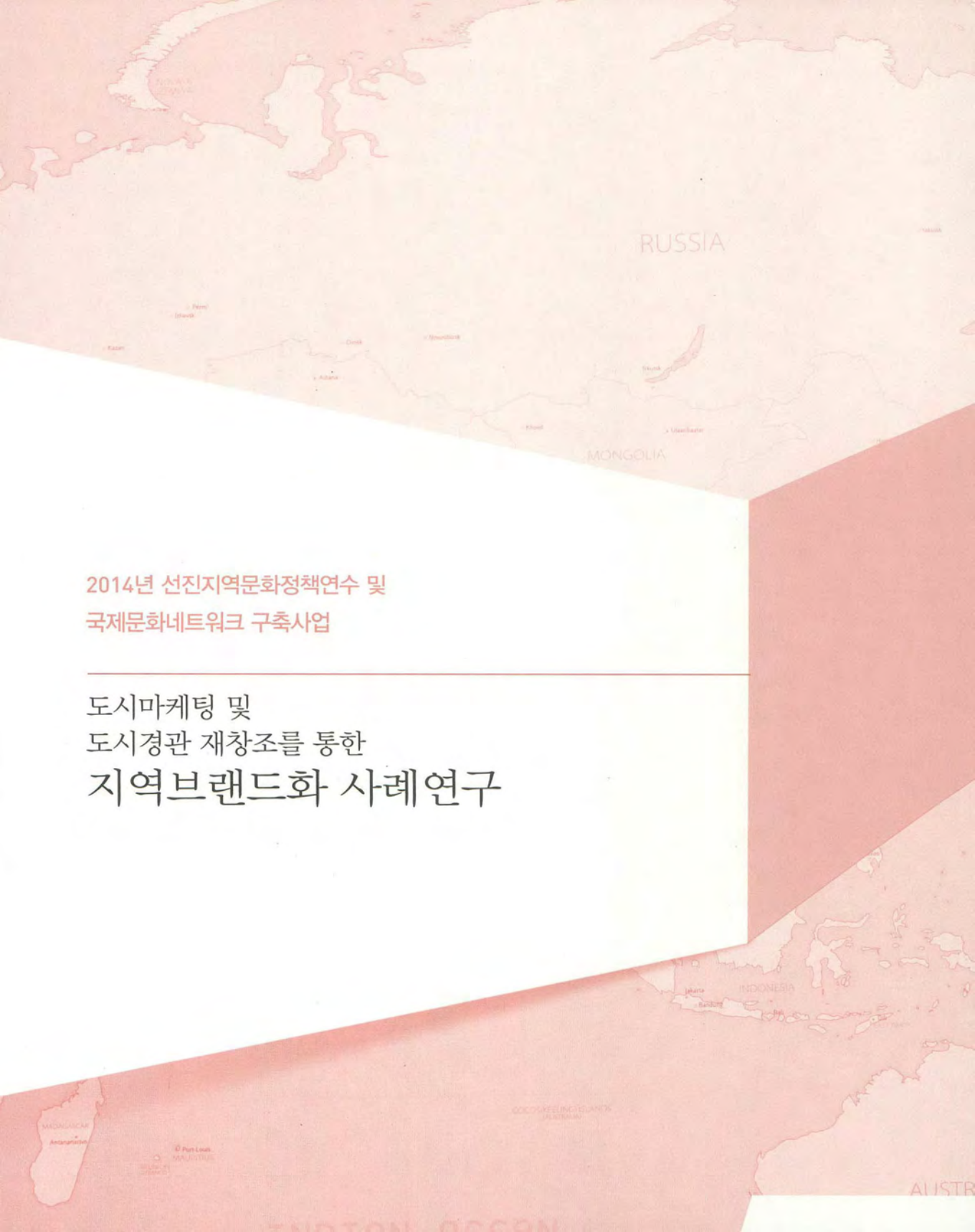
바탐의 중국 사원은 불교와 도교, 유교가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사원이다. 한 개의 건물 안에 관운보전, 대웅전, 관음보전 등 3개의 전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전각 입구에는 특이하게 모두 포화대상이 있다.

건물의 좌측 관운보전에는 유비, 관우, 장비의 상을 모시고 있으며 건물의 가운데인 석가보전에는 오존불을 모시고 있으며 석가모니의 좌우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모시고 그 바깥쪽으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를 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우측인 관음보전에는 관음보살을 주불로 하고 좌우로는 용녀보살

과 선재가 협시를 하고 있다.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이 남자 상으로 조성된 것이 우리와는 다르고 수인 또한 중품하생인을 곁하고 있다. 사원의 마당에는 석조 동자상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

Part 3

사소한 것들이 의미가 되는 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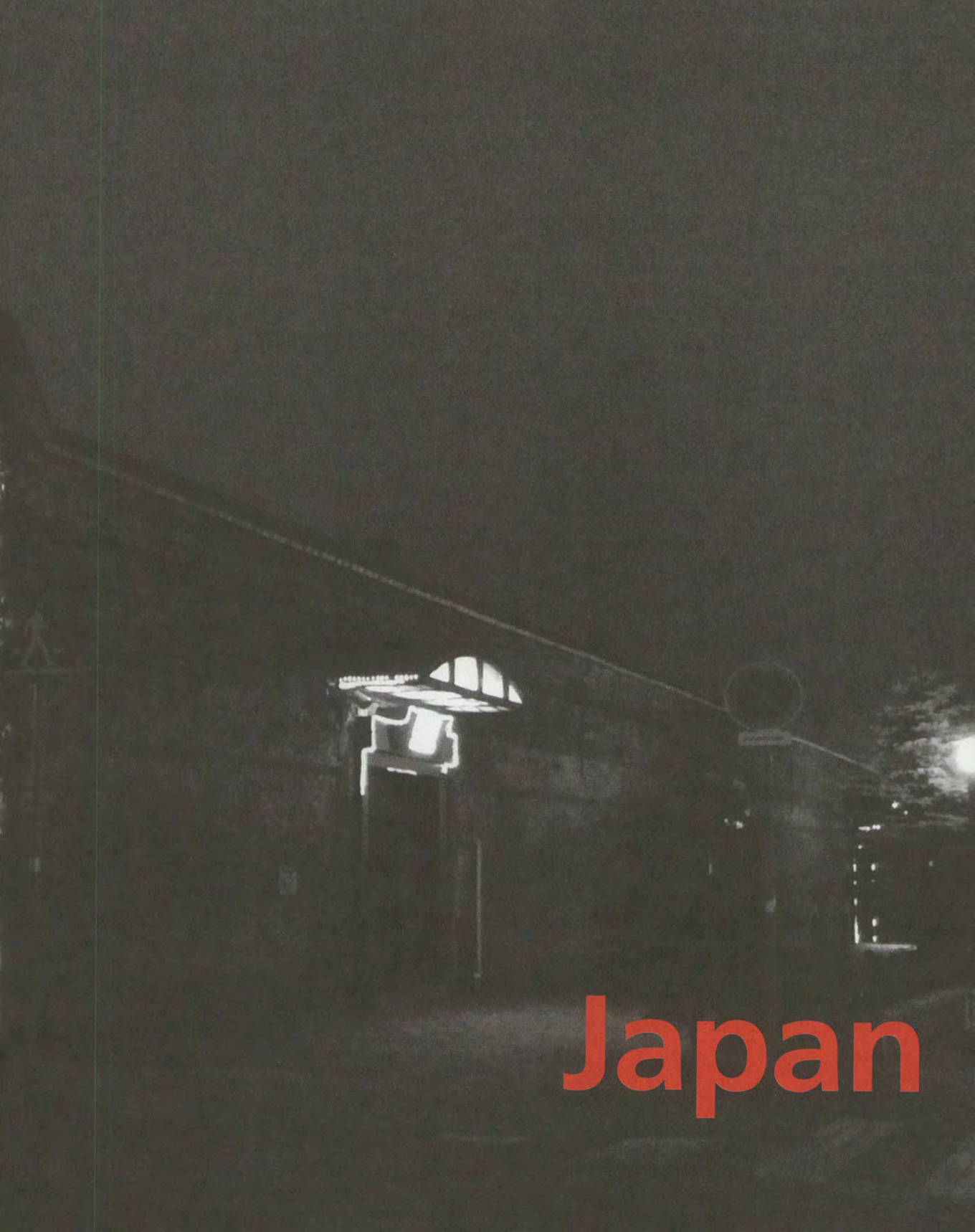


- 근현대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문화정책
_ 훗카이도 하코다테 & 오타루
- 나무와 자연환경이 의미를 갖게 되기까지
그리고마을만들기 _비에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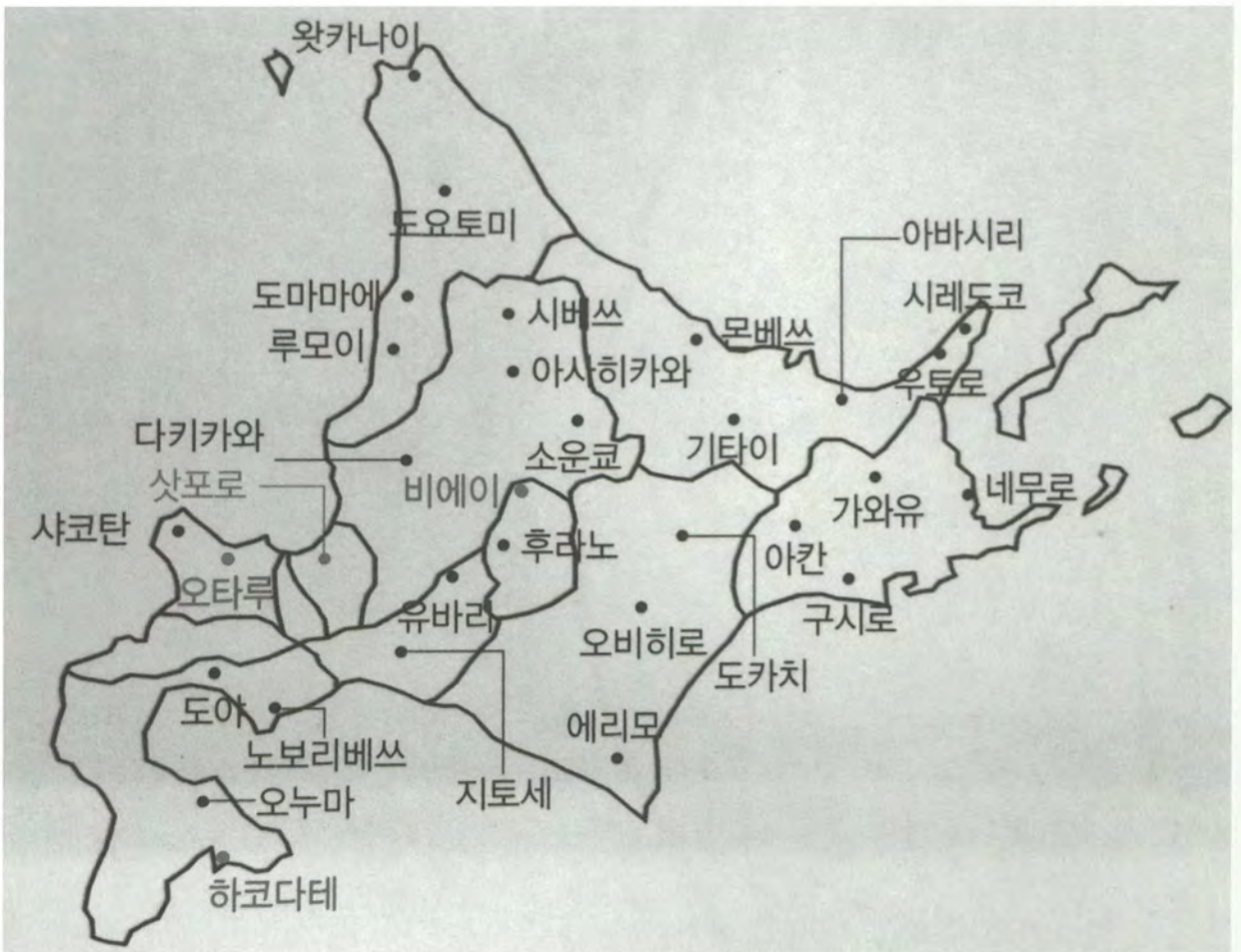
RAY





Japan

1. 홋카이도



1) 홋카이도의 유래

에조치(蝦夷地)라고 불리 우는 홋카이도가 일본역사에서 등장하는 것은 사이메이 천황시대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사이메이 천황 재위 중인 658년에 아베노 히라후(阿部比羅夫)가 초오테이(朝廷)의 명을 받아 시리베시(後方羊蹄)에 군령(郡領)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에조치는 데와노쿠니 국사의 지배시대를 거쳐,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초기에는 무츠노쿠니 쓰가루의 호족(豪族)인 안도오씨족(安東氏)으로 인하여 통치되었다.

하지만 1432년에 난부씨족(南部氏)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안도오씨족은 에조치에 도피하여 히야마(檜山)에 호리우씨성을 건축하였다. 그 후, 1590년까지 에조치는 안도오씨족 직접관할시대를 겪게 되었다.

안도오씨족 다음으로 에조치를 통치하여 지배한 사람은, 다케다신겐(武田信玄)을 시조(始祖)로 하는 마츠마에씨족(松前氏)의 마츠마에한(松前藩)이다. 마츠마에한 시대는 1798년까지이며 약 200년간 계속되었다.

그 후, 제1차 막부(幕府)직할시대(1799~1821), 마츠마에한 복령시대(復領時代)(1854까지), 제2차 막부(幕府)직할시대(1868까지), 하코다테 재판서(箱館裁判所)·하코다테후(箱館府)시대(1869년까지)를 거친 후, 에조치는 개척사(開拓使)의 시대를 맞이한다.

1869년에 메이지 정부(明治政府)는 에조치에 개척사를 설립하여 그 이름을 「홋카이도(北海



아칸국립공원

道)라고 개칭하였다. 이 새로운 이름에서, 「홋카이(北海)」는 에도시대(江戸時代)말기의 에조치 탐험가이었던 마츠우라 타케시로우(松浦武四郎)가 정부에 제안한 「홋카이(北加伊)」에 유래되었다. 또한 「도(道)」는 율령제시대(律令制時代)의 행정구획인 「오기칠도(五畿七道)」에서 유래되었다.

개척사는 1882년 삼현설치로 인하여 폐지되었지만, 농상민 이주(農商民移住)장려정책, 톤텐해이(屯田兵)제도 제정, 미국의 선진 개척기술 도입 등으로 홋카이도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클라크박사를 초빙하여 유능한 인재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홋카이도는 개척시대부터, 제1기 택식15년계획, 제2기 택식20년계획 등, 홋카이도청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홋카이도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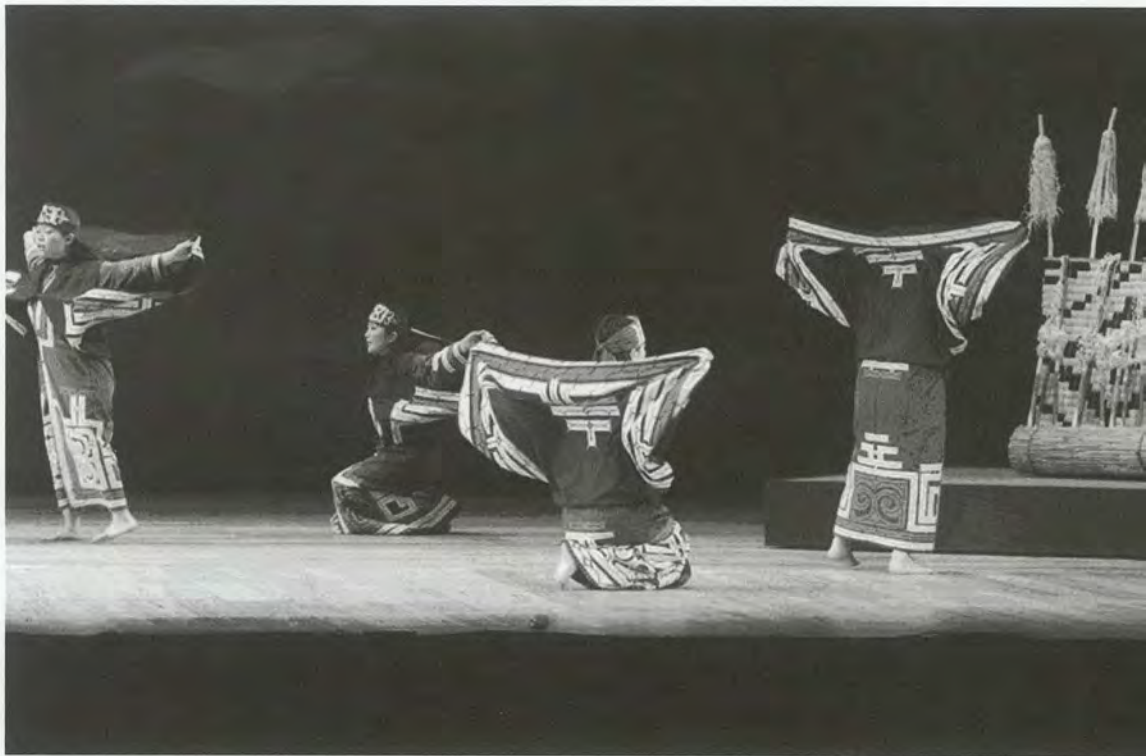
홋카이도의 넓이는 약834만ha[북방영토포함]이며, 오스트리아의 넓이와 거의 같다. 일본 전체의 약22.1%를 차지하며, 각 현(都道府縣)별로는 제1위이다. 홋카이도 본토를 포함하여 50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의 자랑거리는 '대자연'이다.

자연공원 총 면적이 약 86만ha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도 약3만ha가 된다. 야생동물이 숨쉬는 천연림(天然林)과 신비스러운 습원, 그리고 준엄한 산악 등, 경관이 다양하다.

3) 홋카이도의 문화, 아이누 문화, 아이누 민족

일본본토와 같은 죠편문화기를 맞이하여, 수렵, 어로, 채집의 생활을 하였다. 그 후, 본토 등에서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야요이문화가 성립되었지만, 홋카이도에서는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죠편문화가 계속된 조쿠죠편(속 죠편)문화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홋카이도의 넓은 범위에서, 본토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은 사츠몬문화라고 불리는 문화가 퍼졌다. 오호츠크해안가에서는 북방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여겨지는 오호츠크문화라고 불리는 문화가 성립되었다.



아이누 전통무용

현재 전통적인 아이누문화라고 보여지는 생활양식이 성립되는 시기는 약 13~14세기경이라고 추정된다. 이 시기의 아이누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점점 밝혀지고 있다. 13세기 후반의 중국의 자료에는, 아무르강 하류역에 세력을 확장해온 원과 교역 상의 문제로 교전한 기록이 있다. 17세기 초의 크리스트교선교단의 기록에도, 북쿠릴산의 고가의 해달가죽을 가진 홋카이도 동쪽의 아이누나 중국제의 비단직물을 운반하는 테시오의 아이누의 입항에 의해 마츠마에지역이 번영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또한 츠가루해협을 건너, 자유롭게 일본본토인(와진) 사회와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한편, 1457년에는, 오시마반도에서 아이누의 지도자 코사마인이 와진(일본본토인)과 전쟁을 하였다. 와진의 금속제련사가 아이누를 죽인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본토로부터 홋카이도에 이주해 온 와진과 아이누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져 왔던 것이 그 배경에 있었다.

그 후에도, 전쟁은 반복되어 일어났지만, 아이누와의 전쟁 중에 홋카이도 남쪽의 와진세력을 장악한 카기자키씨가, 16세기의 중엽에 전쟁을 종식시켰다. 카기자키씨는 교역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아이누의 지도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또한 아이누와 와진이 교역을 하는 장소를 자신의 성 아래에 있는 마츠마에에 한정하였다.

카기자키씨는 16세기말에 성을 마츠마에로 바꿔, 토쿠카와 막부로부터 아이누와의 교역을 독점하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마츠마에한(松前藩)은 오시마반도 남부에 와진치(본토인의 거주지역)를 설정하고 아이누의 거주지역인 「에조치」와의 왕래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마츠마에한은 가신들에 대한 보수로서, 에조치 내에 설치된 각지의 상업장(아키나이바)에서 아이누와의 교역권을 부여하였다(상장지행제). 아이누는 마츠마에한 이외와의 교역이 금지되고 교역의 장소도 아키나이바에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물론, 교역품의 가치도 일방적으로 내리게 되었다.

당시의 아이누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지도자가 있었으나, 1669년, 그중에서 샤크샤인의 지휘아래 광범위한 지역의 아이누가 마츠마에와의 전쟁에 일어났다. 그러나 샤크샤인은 와진에 의해 암살되고, 전쟁은 아이누측의 패배로 끝났다.

그 후 와진 상인이 각지에서 교역이나 어업생산을 맡게 되어(장소청부제), 아이누가 어장에 고용되어 과도한 노동에 이용되었다. 1789년에는 홋카이도 동쪽의 쿠나시리·메나시지방의 아이누가 어장의 경영자들과의 싸움을 일으켰지(쿠나시리 메시나의 전쟁 등으로 불린다)만, 37인의 아이누가 처형되어 진압되는 등, 와진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는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중에도, 아이누 사회는 독자의 신앙과 생활양식을 유지하였다. 현재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민예도구 중에서 오래된 것은 18~19세기전반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가 되어 메이지정부는 에조치를 홋카이도라 개칭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호적을 만들어 아이누를 일본국민으로 간주하는 한편, 구토인(旧土人)으로 와진(일본 본토인)과 구별하였다.

정부는, 홋카이도의 개척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하여, 선주민인 아이누의 권리나 생활을 무시하거나 묵살하였다. 예를 들면, 장소청부제는 폐지되었으나, 어장은 와진의 경영자에 의해 독점되고, 사슴사냥이나 강에서의 연어사냥을 금지하였다. 또한 토지는 개척자나 와진

의 자본가에 우선적으로 매도되는 등, 아이누 생활의 기반이 약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1899년(메이지32)에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을 제정하고, 아이누에게 일정 농지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면적은 와진의 농민에 비하여 작거나 농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토지가 할당되고, 아이누의 생활터전으로서의 토지 확보보다 철도 등의 개발계획이 우선되는 등, 생활기반의 침식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아이누들이 이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동족에 호소하는 논설 및 문예를 통한 운동이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시라오이에서도 모리타케 타케이치와 같이 철도에 근무하면서, 1920년대부터 단가나 시 등의 창작활동을 하면서 날카롭게 사회를 지적하는 저작물을 발표한 사람도 있었다.

일본은 전쟁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이누도 와진과 동일하게 징병제에 적용을 받아, 많은 아이누 병사가 출정을 하고, 전쟁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군대 내부에서의 차별도 적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1946년(쇼와21년), 아이누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족의 명예 확립을 목적으로 홋카이도아이누협회(그후 홋카이도우타리협회로 개칭하고, 2009년에 홋카이도아이누협회로 다시 개칭)가 성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홋카이도 각지에서 아이누문화의 전승보존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17개의 보존회가 전승하는 고식무용이, 일본의 중요 무형민속문화재에 지정되었다. 아이누어교실도 각지에서 개설되었다.

1984(쇼와59년)년에는 홋카이도우타리협회가 이제까지의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을 폐지하고, 차별 철폐와 경제적 자립, 민족으로서의 정치적인 권리 획득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개시하였다.

1997년(헤이세이9년)년에는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이 폐지되어, 아이누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 등에 관한 지식 및 보급과 계몽에 관한 법률(아이누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아이누문화진흥법은, 아이누의 전통문화의 진흥과 아이누문화에 관한 보급계몽을 중점으로 하고, 현재 이 법률에 준한 다양한 사업이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2. 하코다테 시

하코다테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섬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이 있는 일본의 본섬인 혼슈와 연결해주는 홋카이도의 현관 역할을 하는 하코다테는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으로 시모다 항과 함께 가장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도시이다. 1859년에 요코하마, 나가사키와 함께 일본 최초의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하여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가 되었지만 1871년 삿포로로 행정 중심이 옮겨지면서 행정 기능을 상실하고 항구 도시로 꾸준히 번영해 왔다.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항구와 신선한 해산물, 온천 여행지인 유노카와 외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도시의 모습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코다테 야경



모토마치 지역

하코다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언덕 지대를 모토마치 지역이라고 한다. 개항 당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던 풍경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언덕길 곳곳에서 돌로 포장된 길을 만날 수 있다. 종교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일본인들의 특성 때문에 종교적 색채는 느끼기 어렵고 일반적인 관광지 느낌이 난다.

주요 건물 : 가톨릭 모토마치 교회, 하코다체 하리스토 정교회, 하코다체 성 요하네 교회,
구 하코다테 공회당, 하코다체 시 구 영국 영사관 등



가톨릭 모토마치 교회



하치만자카



구 하코다테 공회당



하코다테아마 로프웨이

베이에리어

JR 하코다테역에서 항구, 바다를 따라 이어진 곳을 베이에리어(Bay Area)라 부른다. 오래된 창고 건물들이 옛 항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언덕 쪽으로 만들어진 창고의 내부는 리뉴얼되어 아기자기한 기념품과 하코다테의 특산품을 팔고 있는 쇼핑몰,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 하코다테 아사이치(새벽시장)

1940년대 하코다테 시청 뒤편에 근교 농가의 사람들이 채소를 팔기 위해 모이면서 생긴 시장이다. 여러 번 자리를 옮기다가 1950년대 말에서야 현재의 JR 하코다테역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야채, 과일 외에 홋카이도의 신선한 계와 오징어도 판매하고 있다. 어항의 오징어를 낚시할 수 있는 이카쓰리보리가 있으며, 낚시에 성공하면 바로 회를 쳐주기도 한다.

■ 가네모리 창고

하코다테가 개항해설 당시 서양의 세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요모노칸(洋物館)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와타나베쿠마시로가 1887년 하코다테 최초의 영업용 창고를 지은 것이 가네모리 창고의 시작이었다. 항공 운송의 발달로 창고 영업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1988년 창고의 일부에 상점 및 레스토랑을 입점시킨 '하코다테 히스토리 프라자'를 오픈하면서 이곳은 다시 활기를 얻기 시작했다. '빨간 벽돌 건물'이라는 뜻의 '아카렌가'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창고 건물들은 '가네모리 요모노칸', '하코다테 히스토리 프라자', 'BAY 하코다테', '가네모리 홀' 등으로 구분되며, 아직까지도 일부는 창고 영업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hakodate-kanemori.com)



하코다테 가네모리 창고



하코다테 아사이치(새벽시장)

3. 오타루 운하



오타루 운하

1872년 최초로 부두를 건설해 상항(商港)으로 홋카이도 개척의 가교 역할을 했으며, 1880년 삿포로[札幌]와 사이에 철도가 개통되어 삿포로의 외항 및 이시카리 탄전의 석탄 선적항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러시아 연방의 사할린·프리모르스키(연해주)와의 교역도 성하였다. 현재도 홋카이도 서안 제1의 상항(商港)이다. 평지가 협소하여 상가·녹지대·주택지 등은 해안단구상에 계단상으로 발달하여 비탈로 이어져 있다.

부두 부근과 서부의 가쓰나이강[勝納川] 하곡이 공업지대를 이루어 제관(製罐)·목재·고무·제분·식품 등의 공장이 있다. 하코다테 본선[函館本線]이 통하고, 동쪽의 교외는 니세코·샤코탄[積丹]·오타루[小樽]해안 국정공원에 속하며 겨울은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를 띤다. 메이지[明治] 말기의 많은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어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1966년, 시내 교통체증을 줄이고 항구를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운하를 메우고 6차선 간선도로 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오타루시 주부와 젊은이를 중심으로 '오타루운하를 지키는 모임' 결성이 되었으며 약취나는 운하 청소, 거리연설, 신문발행, '오타루운하 연구강좌'에 전국 유명강사가 참가하면서 동참 시민이 증가했다.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운하 보존 운동을 통해 운하석조창고, 근대 건축물 등이 지역의 자산으로 재평가됐고 구 항만도시였던 오타루의 역사적 가치도 재인식됐다.

시와 시민들과의 기나긴 협의 끝에 1986년, 운하를 전부 매립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획을 수정해 매립하지 않은 구간의 운하 경관을 정비하고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단의 역사 경관 보존과 활용 조치를 취했다.

특히 운하 주변의 창고는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현대식 주점과 식당으로 변신하고 시내 중심부 오래된 건물들도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하여 메이지 시대의 근대 건축 유산을 보존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 전체의 공간적 통일성도 추구했다.



오타루 오르골당

4. 비에이



비에이 평원

비에이 마을은 자산인 경관을 다음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비에이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를 기반으로 읍민과의 대화와 협동을 통해 전원적인 거주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마을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경제 산업, 배려가 있는 사회 복지, 활기찬 생활 만들기, 발달한 사람 만들기, 모두가 만드는 살기 좋은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에이정[美瑛町]은 홋카이도, 가미카와지청의 중앙에 위치한다. 아사히카와시[旭川市]와 후라노시[富良野市]의 거의 중간에 있다. 가미카와분지[上川盆地]와 후라노분지[富良野盆地] 사이의 구릉지이다. 광대한 정[町]의 면적은 도쿄시[東京市] 23개 구[区]의 넓이와 같다. 면적의 70% 이상을 산림이 점하고 있고 약 15%가 경작지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언덕의 마을[丘のまち]'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1900년 현재 아사히카와시의 일부였던 가무이촌[神威村]에서 분리되어 비에이촌[美瑛村]이 되었다. 1940년 정제[町制]의 시행으로 비에이정[美瑛町]이 되었다. 지명은 기름기가 도는 강 혹은 흐린 강을 의미하는 아이누어 '피이에'에서 유래한다. 기간산업은 농업으로 감자, 밀, 사탕무, 옥수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콩, 쌀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야채를 가공하는 식품제조업과 목재가공 등도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구릉 풍경과 꽃 풍경이 아름다워 인근 후라노시와 더불어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연간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관광지는 다이세쓰산국립공원[大雪山国立公園], 겐과 메리의 나무[ケンとメリーの木], 마일드세븐 언덕[マイルドセブンの丘], 호쿠세이노오카 전망공원[北西の丘展望公園], 세븐스타 나무[セブンスターの木], 신에이노오카 전망공원[新栄の丘], 산아이노오카 전망공원[三愛の丘展望公園], 제루부노오카[ぜるぶの丘], 시키사이노오카[四季彩の丘], 시로가네온천[白金温泉], 비에이정의 풍경을 유명하게 만든 풍경사진가 마에다신조[前田真三]의 사진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포토갤러리 다쿠신관[拓真館] 등이 있다.

비에이가 지금과 같이 인기 관광지로서 홋카이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1971년대부터라고 한다.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풍경 사진가로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에다 신조 씨가 우연히 머물게 된 비에이와 주변 마을의 가미후라노 언덕의 풍경에 감동을 받아 10년 이상 비에이에 드나들게 되었고, 그 사진이 사진집이나 그림엽서, 포스터, 영화, 텔레비전 광고 등에도 사용되어 비에이의 경치가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는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이용해 비에이의 언덕에 '다쿠신관'이라는 사진관을 열어 방문객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비에이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패치워크 도로"를 중심으로 "시키사이노오카" "제루부노오카" 등, 가지각색의 이름이 붙여진 지역에 가득히 피어 있는 꽃의 풍경과 지평선을 내려다보는 언덕 풍경일 것이다.

라벤더, 해바라기, 양귀비, 코스모스, 보라색 사루비아 등이 문자 그대로 ‘패치워크’ 같이 색색으로 선명하게 피어 있는 풍경은 압권이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꽃들 사이를 걸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유명한 장소로는 푸르름이 가득한 가운데 포플러와 떡갈나무가 위풍 당당하게 서있는 풍경이 잘 알려져 있다. 텔레비전 광고나 포스터에도 자주 등장하는 “켄과 메리의 나무”, “세븐스타 나무”, “오야코 나무” 등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곳을 “트윙클버스 비에이 호”, 대여 자전거, 관광 택시를 타고 둘러볼 수 있다.



치토세 시코츠 호수



후라노 라벤다 밭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홋카이도 연수 공식 간담회 스케치 2

마을 전체를 스토리텔링 하다! _ 홋카이도 비에이마을

비에이마을

『마을만들기(町づくり)추진과(推進課)』와의 간담회

일시 : 2014년 6월 19일 (목) 14시

장소 : 비에이 청사 대회의실



비에이초의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거리 비에이를 함께 만드는 조례」

비에이 마을은 자산인 경관을 다음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비에이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를 기반으로 읍민과의 대화와 협동을 통해 전원적인 거주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마을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경제 산업, 배려가 있는 사회 복지, 활기찬 생활 만들기, 발달한 사람 만들기, 모두가 만드는 살기 좋은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래의 자연은 아니지만,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논과 밭과 같이 사람의 손이 거쳐간 농지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홋카이도(北海道)는 원래 숲과 별판만이 있었으나, 그곳을 사람들이 개간하여 밭과 논으로 만들었다. 특히 야나기카와(柳川)에서 가까운 비에이(美瑛)마을은 완만한 구릉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다. 그곳은 바레이쇼(馬鈴薯)와 양파 밭이 되고, 푸성귀 꽃이나 라벤더 밭이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는 원형이 남아 있는 숲도 있다. 수확한 후에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맨땅 위에 경운기가 지나간 흔적만이 보이는 구릉도 있다.

사람의 손이 닿았던 아주 평범한 풍경을,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은 마에다 신조



(前田真三)라는 사진작가가 있었다. 이러한 풍경은 단순한 청결함이 있으며, 유럽풍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홋카이도(北海道)의 풍경이다. 마에다(前田)는 이 지역이 마을에 들어, 폐교가 된 작은 초등학교를 개축하여 다쿠싱(拓真)관이라는 그의 사진 전시관을 만들었다. 입장료는 무료였기 때문에 평판은 좋았고, 관람객들이 책이나 엽서를 사 주었기 때문에 의외로 성공하였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풍경에 진실이 담겨있다. 그것을 갈고 닦아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훌륭함이라는 것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마에다(前田)는 별도로 「마을 만들기」를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원래모습 이상으로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정도인 그의 사진은, 지극히 평범한 풍경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것이 「마을 만들기」와도 연결 되고 있다.

비에이는 인구가 5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마을의 신작로가 있었는데, 허름한 가게와 상점, 시장이 늘어서 있었지요.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에다신조 상의 사진과 마일드세븐 CM으로 경관이 멋있다고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하면, 일본 본토에 돈 있는 사람들이 비에이 마을에 땅을 매입하여 이른바 '별장'을 짓고 싶어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과 공무원들이 모여 심각하게 비에이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죠.

Q&A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첫 번째로, 마을에 별장이 들어오게 되면 아름다운 비에이의 경관이 난개발로 인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별장 건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 마을의 구획을 나눠 일정구역에만 별장 건축을 허가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마을을 정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취한 조치가, 앞서 말씀드린 마을 신작로 정비 사업입니다.

몇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1. 비에이 역(驛) 정비에는 반드시 비에이에서 채석한 돌로 정비한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 집을 지을 때 앞면은 반드시 비에이에서 생산된 돌을 두 단씩 쌓은
 디자인으로 건축한다.
3. 삼각지붕 가운데 그 집이 건축된 연도를 기입한다
4. 전신주는 지중화하고, 친환경 태양열 전지를 사용한다.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 풍경입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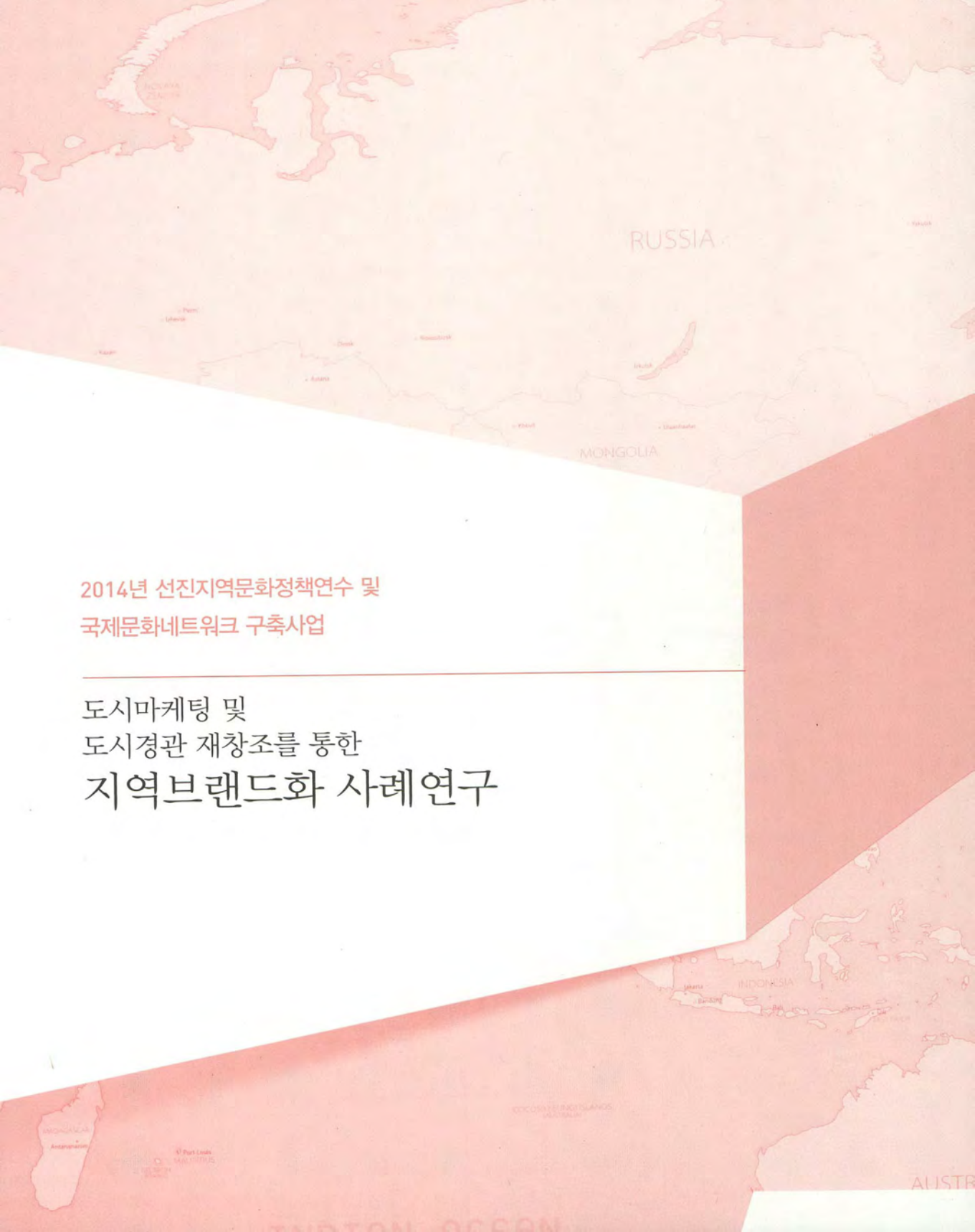
나무가 듽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을은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땅은 넓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구분을 짓기 위해 나무를 한그루씩 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밭과 밭 가운데 나무 한그루씩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들과 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고, 그것을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에다 신조가 매력을 느껴 사진을 찍고 세계에 발신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유명 담배회사 CM에 비에이 마을의 풍경이 더불어 유명해지면서 각각의 나무에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일본 국내, 외 관광객들이 연간 4~5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

Part 4
이제 다시
지역으로



연수합평회



1. 북서의 언덕 전망 공원

5ha의 넓이를 가진 전망 공원으로 공원 내에는 라벤더를 키우고 있다. 또 피라미드형의 전망대에서는 구름지대의 전경이나 토카치다케산 연봉을 관망 할 수 있다. 북쪽 지구 농업 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1995년 개원하였고, 꽃밭 안에는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 커피 등도 즐길 수 있다.

2. 켄과 메리의 나무(포플러 나무)

1972년 닛산 자동차의 「사랑의 스카이라인」 M의 「켄과 메리의 나무」



3. 세븐 스타 나무(떡갈나무)

언덕 위에 한 개의 「떡갈나무」가 서있지만 1976년에 관광 담배 「세븐 스타」의 패키지에 게재된 나무이다. 지구 전체가 농산물의 경작에 의해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는 것부터 「패치워크의 길」이라고 불리운다.



4. 마일드세븐의 언덕(낙엽송)

1977년에 마일드 세븐의 패키지에 사용된 언덕에서 방풍림에 석양이 가라앉는 경관이 사진 애호가에게 호평을 받는 언덕이다.



5. 제루부의 언덕

(바람의 제, 향기의 루, 놀다의 부)

국도 237의 언덕 위에 있어, 8ha의 부지에서 약 3,000개의 라벤더, 해바라기, 양귀비가 만개한다.



6. 부모와 자식의 나무(떡갈나무)

3개의 「떡갈나무」가 높은 곳에 사이 좋게 붙어 서있어 겨울의 풍설이나 여름의 풍우에도 지치지 않고 당당히 서있는 모습은 바야흐로 부모와 자식 같은 것으로부터 「부모와 자식의 나무」라고 불리우고 있다.



7. 철학의 나무(개량포플러)

약간 비스듬하게 서있는 모습이, 어떤 생각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름이 붙여졌다.



연수 합평회

일시 : 2014년 7월 30일 11시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

참석자 :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장세영(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과장),
서교송(파주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박용철(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부천문화원 사무국장)

● **사무처장 (최영주)**

전체적으로 이번 해외연수에 갔다온 느낌은?

●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 개발에 의해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이전의 것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에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다.

● **사무처장 (최영주)**

이번 연수지는 북해도 일대를 탐방하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많이 힘들겠지만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소재를 얻었으리라 생각한다. 각 지역별로 다른 느낌으로 와 닿았으리라 본다.

먼저, 하코다테를 시작으로, 오타루, 삿포로, 비에이 순서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다른 곳도 들렀지만 주요 핵심은 4개 지역이니까...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하코다테.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별 것 없는 작은 도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쇠락해 가는 어촌마을이나 다름없다. 아마 이 지역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 고민의 결과가 이번에 본 아카렌가 창고군이나 특산물인 하코다테 라면

이나, 야경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퀄리티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그렇다. 어찌보면 겉모양은 인천아트플랫폼으로 조성된 차이나타운 부근 창고군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인천이나 군산쪽의 근대거리가 더 쾌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콘텐츠의 차이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쪽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지역민들의 특성이 반영된 생활밀착형 콘텐츠라는 점이다. 인위적이지 않다. 자연스럽다. 그 점이 알미우면서도 부럽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하코다테 야경은 정말 훌륭했던 것 같다. 서울 야경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지리적 구조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압권이었다. 최고였다.

● **사무처장 (최영주)**

작년 중국 798예술지구에서 느꼈던 것처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공간이 자본에 의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의 정신이 자본을 통해서 없어져버렸다는 평가였었는데, 일본 하코다테 공간에서 자본의 폭력의 흔적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는가?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서양 페리제독의 동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성된 모토마치 일대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다. 지역을 디자인하는데 역사적인 부분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외국문물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찌 되었건 하코다테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조성된 지역재생의 흔적이 느껴진 부분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문화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숍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관광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일본사람들이 다니는 음식점, 커피숍에 다녀보고 싶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확보하는지 알고 싶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단체여행의 한계죠. 개인적으로 다닐 수 없이 단체가 함께 식사해야하니까.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오타루는 정말 좋았어요. 문화원 프로그램 중에 답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답사를 하면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역성, 역사성, 그리고 음식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술도 포함해서요.

하코다테도 마찬가지로 오타루는 3박자가 맞아떨어져요.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었어요. 지역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나도 그렇게 느꼈다. 지역문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아이템이 음식이다. 난 특히 오타루에 있는 근현대 역사를 소중히 취급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그리 오랜 과거가 아닌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미래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역시 일본을 보고 왔지만 보는 내내 의정부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내 머리가 복잡했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사실 어찌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탑다운 방식의 정책결정이 아닌 주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방식이다. 오타루 운하를 복개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20년 동안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그냥 단순

히 넘길일이 아니다.

일본인이 지독한 것인지 그만큼 지방자치가 성숙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천을 복개하는데 20년을 합의하는데 보내겠냐는 거다.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시지정 역사적 건축물! 좋은 아이디어이다. 건축물을 단순히 그냥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활용을 같이 고민했다는 것이 더 인상적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지역재생, 도시재생의 현장이 바로 오타루가 아닌가 싶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왜 좋은 후통을 다 없애버렸을까?’ 라고 했더니 ‘우리도 멋지게 건물들을 지어놓고 잘 살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라고 의외로 반문을 했다. 그래서 ‘아니다. 한국에 가면 서울에 북촌이라는 동네가 있다. 북촌을 보존하려고 우리는 뒤늦게나마 노력하고 있다.’ 라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깨어있었다면 4대문 안은 그냥 텅어야 한다. 지금 파리가 그런 거다. 파리도 외곽에는 빌딩이 다 들어서 있지만 중앙 도심은 그대로 살리고 있다. 우리의 4대문 안도 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의 개발논리에 의해 옛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잖느냐.

●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그런데 그 개발논리의 제일 피해자는 경기도 아닌가?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그렇다. 그런데 이미 일제시대부터 우리 것은 낙후된 것, 천박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파괴됐다고 봐야한다.

●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면, 문화원이든 재단이든 지금 의식을 가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곳에서 자꾸 새로운 하드웨어를 생산하기보다는 근·현대에 생겨난 것들이라도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 차이나타운 내에는—물론 일본인이 지은 것이지만—근대의 건축물들을 다 살려서 소소한 박물관으로 만들고 관련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박물관이나 기록실로 운영하고 있더라.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내부 사정으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자세는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다. 경기도에도 분명 그런 곳들이 있는데 지역의 인물을 기린다고 하면 꼭 그것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런 것 보단 인천처럼 더 옛날의 것들은 못 지켰지만 근·현대의 것이라도 지켜가려는 메시지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저도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느낀 점은, 문화원형이다 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의 추구를 많이 얘기하는데, 원형 자체만이라도 지켜야 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맞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역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이다. 과거의 유산—그것이 오랜된 것이건 근대의 것이건—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다. 그것이 오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의 고민이 중요하다.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비에이마을이 이번 연수의 백미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직원연수 때 강의 제목으로 ‘사소한 것들이 의미를 갖는 순간’이 있었다. 최처장님이 아마 비에이를 염두에 두고 그 제목을 뽑아 낸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맞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것 없다. 푸른 들판에 나무한그루 있는게 고작이다. 신기하다. 그 나무를 보러 전국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다.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느냐에 따라 마을이 바뀌는 좋은 사례였다.

●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놀라운 것은 간담회 때 공무원이 얘기한 것처럼 마을주민들이 결정의 주체였고, 공무원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 뿐이다라는 마인드였다. Before/After 사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희망을 봤다. 옛날 비에이 마을 전경은 진짜 시골 읍내 거리 사진이었다. 간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상점들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문화가 어떻게 발전해야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다.

●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집을 짓는 것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붕 색깔, 벽돌 선택 하나하나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경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었다. 동두천도. 이제부터 동두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하는 고민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머리가 복잡하다.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자연환경, 지역경관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의 전형을 본 것 같다. 꼭 다시 와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 **사무처장 (최영주)**

그러면 다음 연수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최의열)**

일정에서 하루정도는 '민생투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한다. 여행사에

서 정해진 패키지 말고 일정을 정할 때 우리도 미리 정보를 가지고 여행사와 일정을 조율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여행사를 공개 모집 한다든지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다.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단체로 오는 거 말고 4~5명씩 팀을 짜서 보는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꼭 다시 와보고 싶다. 골목 골목 더 다녀보고 싶었는데,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 그리고 너무 많은 지역을 짧은 기간에 다 보려고 하니 많이 아쉽다.



함께 한 사람들

총괄 :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기획운영 :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운영지원 : 장세영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과장

참가자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장재찬 양평문화원장 방규동 고양문화원장
장 신현분 수원문화원임원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이영구 과천문화원장 조
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조명호 이천문화원장 김봉식 안산문화원장 임관묵 안
산문화원임원 임명재 오산문화원장 이용복 남양주문화원장 우관제 파주
문화원회원 박형재 부천문화원장 전명재 부천문화원임원 최영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장세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과장 임혜선 경기
도문화원연합회기획팀장 이흥귀 가평문화원사무국장 박용철 동두천문화
원사무국장 장경호 과천문화원사무국장 이종안 김포문화원사무국장 김
경민 포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오민영 평택문화
원사무국장 장기명 군포문화원사무국장 주인군 수원문화원사무국장 서
교승 파주문화원사무국장 형태호 안성문화원사무국장 이상덕 안양문화
원사무국장 박정근 의정부문화원사무국장 임동균 화성문화원사무국장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장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







2014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마케팅 및 도시경관 재창조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를 위한

해외연수결과보고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본 책에 실린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의
허락없이 무단도용할 수 없습니다.